기획 광주매일신문 (제9034호) 2025년 10월 24일 금요일



오는 27일 퇴임하는 오주섭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

# "지역사회 의제 선도…'빛과 소금' 역할 충실"

오주섭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(이하 광주경실련) 사무처장이 오는 27일로 임기 6년을 마친다.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제마다 앞장서서 고견(高見)을 전해온 그에게 그 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봤다. /편집자주

#### ▲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. 그간의 소회는?

-1993년 광주은행노동조합 사무국장을 할 때 당시 노조위원장이 광주경실련 임원이어서 인 연이 있었다. 광주경실련에서 회원과 임원(집행 위원, 자치분권위원장, 공공감시위원장)으로 활 동했으며 광주경실련 최초로 공모를 통해 사무 처장으로 일하게 됐다.

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한다. 경제정의, 사회정 의를 향한 경실련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지 역사회의 중요한 의제를 선도 또는 적극 참여하 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바라는 회원들과 시민들 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활동을 했다는 점이 보 람이다.

아쉬움은 임기 6년 동안 우리 고장 광주가 더 살기 좋은 도시, 시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는 도 시가되기위해 노력했는데 갈길이 먼 것같다.

# ▲임기 중 대내외적 성과를 꼽자면.

-내적으론 사무처 업무의 체계화, 회원 및 임 원·지역 시민사회단체·노동단체·전문가 그룹· 언론 등과 소통 강화, 민원인에 대한 업무 처리 향상, 재정 안정 등이다. 특히 사무처 활동가 1명 을 공개 채용하고 성명서 기자회견문 논평 등을 발표할 때 검증을 강화해 광주경실련의 신뢰도 를 높였다고 생각한다.

외적으론 민선 7,8기 광주시정 평가를 통해 견 제와 감시, 대안을 제시한 걸 꼽고 싶다.

민선 7기 때 달빛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 계 획에 포함시키는 데 지방분권광주운동본부와 함께 앞장섰다.

광주김치타운에 있는 국책연구기관인 세계김 치연구소를 본원에 통합시키려고 할 땐 반대 성 명을 발표해 결국 철회시켰고 윤석열 정부의 한 국에너지공대 예산 삭감과 총장을 국민의힘 출 신 정치인으로 임명하려 할 때 앞장서 반대 입장 을 표명했다.

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개정 촉구, 도시 철도 2호선 관련 대응,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지방 분권 및 균형발전 촉구, 광주형일자리 1호 사업 인 광주글로벌모터스(GGM)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활동, 금호타이어 시민대책위 참여 등도 거 론할 수 있겠다.

안타깝게도 스스로 생을 마감했을 때 미안함을 금할 수 없어 내부 논의를 통해 지원 사업을 계 획했고 실제 추진한 것도 의미가 남다르다. 광주 도시공사 등의 단체와 협약을 맺어 도시공사 소 유 임대아파트에 입주 시 TV, 냉장고,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마련해 줬고 임원들이 직접 정성을 담아 준비한 음식을 자립 준비 청년들과 함께 나 누기도 했다.



단체 안정성・신뢰도 등 향상 광주시 견제·감시·제언 성과

신뢰 바탕 소통으로 난관 해결 복합쇼핑몰 상인 등 협의 필요

내달 29일 출판기념회 개최 내년 지방선거 북구청장 출마



## ▲그중가장기억에 남는일은.

-광주의 청년 창업가가 등록 상표를 식품업계 대기업에게 탈취당하고 소송전에 휘말렸을 때 정진욱 국회의원과 협업해 해결한 적이 있었다.

당시 중앙경실련, 광주경실련, 정진욱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기업의 상 표권 탈취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력 주장

이후 해당 업체 대표는 국정감사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, 국정감사 전날 1심 패소 판결대로 손 다.

#### 해배상을 하기로 했다. ▲일을 하면서 난관은 어떻게 극복했는지.

-흔히 '일 보다 사람 때문에 힘들다'라는 말을 한다. 특히 시민 운동은 많은 사람과 협업을 해 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데, 이때 가장 중 약 3년 전 우리 지역에서 자립 준비 청년들이 요한 건 진정한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이다. 신뢰

를 바탕으로 한 소통으로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

# ▲마침표를 찍지 못하게 된 목표가 있다면?

-경양호 사례를 교훈 삼아 풍암호수를 원형 보존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시민들의 바람과 달리 수면적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심과 수량을 대폭 축소하는 안이 결정됐고 현재 공사가 진행

민선 7기 때 전방 일신방직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'협상 대상지 선정 검토 전문가 합동 TF 팀'이 1년4개월여간의 활동을 통해 구도심에 남 은 9만여평의 '마지막 노른자위' 땅이 광주의 랜 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그림을 잘 그렸는데, 민 선 8기 들어 많이 달라졌다. 복합쇼핑몰이 들어 서면 자영업자, 소상공인, 전통시장 등 많은 시 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데 민선 8기는 아직

협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. 민선 9기에 전문가들 과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수정 보완됐 으면 한다.

## ▲경실련의 지향점을 제시한다면?

-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89년에 창립된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민단체 가운데 하나로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와 경제정의,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시민의 권리와 참여를 확 대하는 것을 주된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. 즉, 공 정한 사회 경제 질서+깨끗한 정치+참여하는 시 민사회, 이 세 축을 통해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민주사회를 이루는 게 목표다.

이를 위해 앞으로도 시민운동·캠페인·정책 제 안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야

정치·행정 권력 감시를 통한 개혁·제도 개선 촉구도 이어가야 할 지점이며 노동·복지·교육· 환경 문제에도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고 불평등 해소와 사회 통합을 강조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

### ▲향후거취나계획은무엇인지.

-오는 27일 임기 6년을 마치고, 내년 지방선거 에 북구청장으로 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.

1993년 광주은행노동조합 간부 연수에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초청해 강의를 들으면서 정치에 대한 생각이 깊어졌다. 1997년 외환위기 때 정부 가 IMF와 협약을 통해 우리나라 은행을 구조 조 정하기로 합의한 후 2000년 광주은행을 퇴출시 키려 할 때 광주은행신협이사장 겸 노조간부로 서 사표를 가슴에 품고 광주은행 살리기에 앞장 섰는데, 이때 다시 만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통 해 정치에 대한 결심을 하게 됐다. 그동안 다양 한 활동을 바탕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세 번째 도 전하며 다음 달 29일 출판기념회를 시작으로 본 격 출사표를 던질 계획이다. 많은 관심과 격려, 조언을 바란다.

# ▲지역사회에전하고싶은말씀은?

-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87년 민주화투쟁 이후에 뜻있는 분들이 모여 결성했고 광주경실 련은 1990년에 출발을 해서 올해 35주년이 됐다. 흔히 시민단체는 '빛과 소금'의 역할을 한다고 얘기한다. 경실련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 터 지원을 받지 않고 위수탁과 보조사업도 엄격 히 금지돼 오직 참여하는 시민들의 소중한 회비 로 운영되는 시민단체다. 광주경실련이 지역 사 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. /안재영기자

